

보웬 가족치료를 통해 살펴본 이삭의 불안과 분화수준*

Isaac's Anxiety and Differentiation Level Analyzed by Bowen Family Theory

서정우 (Jung-Woo Seo)**

김용태 (Yong-Tae Kim)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Isaac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through Bowen family theory and to present implications through it. For this purpose, Isaac's anxiety and differentiation levels were examined in chronological order according to the main events and backgrounds of his life. They are the background of original family, birth and growth period, a sacrifice event, marriage, well-conflict cases, child relationships and a blessing event. These data were compiled according to anxiety, triangling and differentiation level in the conclusion. First, Isaac lived with high anxiety to take on his role as the only channel through which God's covenant was fulfilled. Secondly, Isaac repeatedly formed triangles with God, parents, children, and others due to high anxiety. Third, in repeated triangles, Isaac did not grow sufficiently, so his differentiation level was low. However, Isaac experienced in his old age God, not himself, fulfilling his covenant. So he's got a little higher differentiation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Christian counsel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t the end.

Key words : Isaac, Bowen family theory, anxiety, differentiation level, Christian counseling

* 2021년 5월 11일 접수, 7월 14일 최종수정, 8월 24일 게재확정

**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기독교상담학과 외래교수,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palace81@naver.com

*** 아가페 초월상담연구소(Agape Transcendental Counseling Center) 소장,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7 아이에스비즈타워 1004호, yong29kim@naver.com

1. 서론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족장으로 다른 족장들에 비해 수명이 가장 길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 기록된 분량은 가장 적어서 다른 족장들보다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다(Burge & Hill, 2016). 그렇지만 이관직(2014)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증거이자 신앙 전달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삭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살펴보면, 많은 학자들은 이삭을 온유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순종과 평화의 사람으로 보았다(김홍규, 1994; Burge & Hill, 2016).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일부 학자들은 이삭을 소심하고 의존적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미성숙한 인물로 보기도 한다(안문혁, 1995; 장일선, 1995; 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Calvin, 1993; Stevens, 2003). 이렇게 이삭의 행동에 대해 학자들이 상반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더욱 풍부한 이해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측면 중 하나로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 이삭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삭에 관련된 기존의 상담학적 관점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삭을 성인아이 개념을 통해 살펴본 연구가 있고(윤남옥, 2003; 이관직, 20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김미경, 2011). 이 밖에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 이삭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이는 먼저 전체 족장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으며(이동순, 2004; 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한 족장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김은미·황혜숙·김용태, 2013; 이수미·김용태, 2014). 먼저 이동순(2004)은 가계도를 통해 가족 전체의 체계를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못했다. 반면 조난숙과 동료들(2010)의 연구는 각 가족들을 자세하게 해석하여 성경적 함의를 찾아내려 하였으나 아쉽게도 이 연구에서는 다른 족장들과 달리 이삭에 대한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빠져있다. 이 외에 각 족장별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이삭에 관한 해석은 간접적으로 나타날 뿐 이삭은 연구의 직접적이고 중심이 되는 대상으로 주목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삭을 연구의 중심이 되는 대상으로 삼고 보웬 가족치료를 통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보웬 가족치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보웬 가족치료는 개인과 현가족의 현재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상담이론이나 가족상담과 달리 다세대 가족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넓은 관점에서 현재 증상을 해석하는 이론이다. 보웬 가족치료에서 분석하는 핵심개념은 불안과 삼각관계, 그리고 분화다. 첫째로 불안은 실제 혹은 가상의 위협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다(Kerr & Bowen, 2005). 이 불안은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여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서로 융해되어 있을 경우 더욱 강해지며, 불안을 공유함으로써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수된다. 둘째로 삼각관계는 두 사람의 갈등으로 불안이 높아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이 그 관계로 들어옴으로 불안이 낮아져 관계가 안정화 되는 것이다(김용태, 2000). 따라서 불안은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주요한 요인이다(Nichols & Schwartz, 2007).

셋째로 분화수준은 한 사람이 감정을 지적체계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즉, 가족 안에서 감정, 곧 불안이 높아지더라도 가족이나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분별하여 행동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김용태, 2000). 반면에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에 의해 행동이 지배를 받는다. 즉, 불안이 높아지면 즉각적인 반사적 대처로 불안을 낮추기 위한 충동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개별성을 포기하며, 자신이 분별한 합리적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따라서 분화수준은 개인의 감정적 성숙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oberto,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기록된 자료가 다른 족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웬 가족치료를 이삭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의 도구로 선택하였다. 개인이나 개인의 행동 및 증상에 초점을 맞추는 다른 이론들보다 개인을 다세대에 걸친 가족의 틀을 통하여 분석하는 보웬 가족치료가 보다 넓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있어 적합하고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Nichols, 2011). 따라서 보웬 가족치료를 통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제공해줄 것이다. 첫째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삭이 경험한 불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둘째로 가족들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형성된 삼각관계 안에서 이삭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안과 삼각관계를 통해 이삭의 분화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이삭에 대해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삭에 대한 기존의 신학적 해석과 상담학적 해석들을 살펴본다. 둘째로 보웬 가족치료를 통해 이삭이 살아온 삶의 주요사건들에서 나타나는 불안과 삼각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분화수준을 분석한다. 이러한 이삭에 대한 보웬 가족치료적 해석을 통해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찾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본론

1. 이삭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1) 기존의 신학적 해석

성경에 기록된 분량 면에서도 순수하게 이삭이 주인공 역할로서 등장하는 부분은 단지 창세기 26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별로 두드러진 면이 없다고 할 수 있다(이동원, 1989).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다른 족장에 비해 이삭에 대한 주석 자료는 많지는 않고, 이삭이 등장하는 내용에서조차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을 중심으로 해석된 자료들이 많다. 이삭에 대한 기존의 신학적 자

료들을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삭의 양보와 평화주의적 행동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들이 많으며, 일부 부정적 평가와 중도적 입장을 취한 자료들이 있다.

먼저 이삭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신학자들은 이삭이 믿음의 부모 아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동시에 엄격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보았다(서철원, 2001; 안문혁, 1995; Burge & Hill, 2016; Henry, 1975). 이들의 해석을 정리해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시는 등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출생 전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출생 이후 부모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 사랑을 독차지하고 성장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도 익숙할 정도로 교육을 잘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지는 위기의 순간에도 이삭은 겸허하게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Henry(1975)는 이삭이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안문혁(1995) 역시 이삭이 절대적인 순종을 습관처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으며, 이후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 천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후 우물과 관련된 행동들에 대해서도 비록 이삭이 영웅적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여 쉽게 소유를 빼앗기는 무능하고 나약한 면을 보이지만, 도리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무저항으로 사는 이삭의 모습이야말로 기독교라고 역설하여 강조했다. 서철원(2001)도 이삭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제물로서 아버지의 뜻에 거룩하게 순종한 것이라고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께서 이삭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다고 말하며 이삭의 믿음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는 제물 시험 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언약을 같이 듣게 하심으로 이삭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셨다고 보았다. 이처럼 많은 신학자들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게 된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 이삭의 행동을 예수님의 예표로서 보기까지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비하여 Calvin(1993)은 제물 사건에 대하여 한 발 물러서며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는 이삭이 자원해서 복종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감당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여 평가하지는 않았다. Calvin과 더불어 Wenham(2005)과 이동원(1989) 역시 우물 분쟁 사건에 대하여 안문혁(1995)의 해석처럼 이삭이 평화를 추구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단지 겁이 많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며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평가를 유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삭의 행동들도 있다. 이는 대부분 이삭의 자식 양육과 장자권 축복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삭이 자신의 편협한 욕심 때문에 자식들을 편애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거슬러 편애한 자식에게 장자권을 축복하려고 시도했다고 보았다(이동원, 1989; Burge & Hill, 2016; Calvin, 1993; Henry, 1975; Stevens, 2003; Wenham, 2005). Henry(1975)는 이삭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애정 때문에 일상적인 상속법을 따라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고,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게 되자 잘못을 뉘우치고 야곱의 장자권을 인준했다고 보았다. Calvin(1993)은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역행하면서까지 에서를 편애한 이유를 과도한 식탐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Calvin(1993)은 이렇게 식탐에 집착하는 이삭의 행동을 족장으로서는 수치스럽고 무가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Stevens(2003)는 창세기 27장 4절의 히브리어 원문 직역에 따르면 이삭은 “사슴고기를 입에 문 사람”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감각적이고 자기 멋대로이며 자신의 배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강한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이동원(1989)도 이삭이 장자권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갖거나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 추구가 결여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많은 신학자들은 이삭이 조용하며 소극적이고 온순한 성격을 가졌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순종함으로써 성숙하게 행동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결혼이나 우물 분쟁 사건들에서 이삭이 보여준 양보와 평화주의적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제물 사건에서 이삭의 행동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순순히 희생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예표로 언급되며 이는 거룩하고 위대한 순종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가를 유보하며 다소 중도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으며, 이삭의 노년에 나타난 자식 양육과 장자권 축복 사건과 관련된 행동들은 신학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삭은 좋게 말하면 양보와 평화를 사랑한 순종의 사람이며, 나쁘게 말하면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신학자들의 기존 해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상반된 해석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2) 기존의 상담학적 해석

이삭의 행동에 대하여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기존의 자료들은 ‘성인아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그리고 가족치료 이론을 적용한 해석이다. 먼저 ‘성인아이’ 관점으로 접근한 해석을 살펴보면, 이관직(2014)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든 관심과 기대, 충애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가계를 이어가야 되는 외동이자 장남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 나머지 아이답게 자랄

수가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이로서 발달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 ‘성인아이’가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행동하기보다 주위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피동적인 사람이 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성인아이’란, 어린 시절 나이에 맞지 않게 문제를 성인처럼 조숙하게 처리하다 보니 정작 성인이 되어서는 미성숙하게 행동하며 여전히 어린 시절의 발달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란 의미다(장일선, 1995; Sledge, 1992). 노용찬(1996)은 성인아이가 지니는 공통적 감정과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성인아이는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충성스럽다. 둘째로, 성인아이는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해서 도리어 선택과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에게 돌린다. 셋째로, 성인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소신 있게 행동하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따른다. 넷째로, 성인아이는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하며 무능력감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로, 성인아이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처가 되는 상황이나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아이는 모호한 경계선으로 타인의 욕구나 감정에 얽혀 버린다. 이러한 성인아이의 특성들은 이삭의 행동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반영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관직(2014) 외 윤남옥(2003) 역시 간략하게 성인아이 관점으로 이삭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한편 이관직(2014)은 성인아이에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관점으로도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였다. 그는 제물 사건으로 인해 이삭은 극심한 혼란, 유기, 배신, 충격과 공포, 절망, 무력, 등과 같은 감정을 경험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이삭이 감당하기 힘든 외상이 되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김미경(2011)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미경(2011)은 제물 사건을 통하여 이삭은 한 동안 충격적인 고통이 반복되어 괴로웠겠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각인되어 이후 전반적인 생애 동안 이삭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반면 서철원(2001)은 제물 사건으로 인해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정서적으로 단절하게 되고 어머니인 사라와 밀착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제물 사건을 알게 된 어머니인 사라가 크게 괴로워하여 그 뒤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곁에 두고 자기의 장막에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에게 밀착되어 40세가 되어 적지 않은 나이가 되기까지 미처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삭에 대해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은 모두 보웬 가족치료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창세기의 전체 족장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고(이동순, 2004; 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한 족장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김기돈, 2002; 김수영, 2002; 김은미·황혜숙·김용태, 2013; 안윤경·오지희·김용태, 2016; 이수미·김용태, 2014). 먼저 이동순(2004)은 가계도를 통해 가족 전체의 체계를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못했다. 반면 조난숙과 동료들(2010)의 연구는 각 가족들을 보웬 가족치료의 개념별로 자세하게 해석하려 했으나 다른 족장들에 비하여 이삭에 대한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빠져있어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외에 각 족장별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이삭에 관한 해석은 다른 족장의 가족배경으로서 간접적으로 짧게 나타날 뿐 직접적으로 자세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은 이삭이 부모와 밀착된 관계로 인해 독립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아감이 부족하고 소심하며 문제의 흐름에 단순히 따르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공통적으로 평가를 한다(김수영, 2002; 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이 밖에 이삭처럼 부모의 총애를 받고 자란 외동아들에 대한 연구들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연구들에 의하면 총애를 받는 외동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김병태, 1998). 첫째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조숙하며 영리해지는 반면 시련이 없는 환경으로 나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통제로 인해 수치심을 경험하거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떨어지고 자기 주관이 부족하며 정체감 형성에 결함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래 형제가 없기 때문에 사교성과 의사소통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 비록 이 연구들이 이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처럼 다양한 자료와 관점에 따라 이삭의 행동에 대해 조명한다면 이에 대해 보다 풍성한 해석을 더욱 얻게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보웬 가족치료적 해석

(1) 원가족의 불안

보웬 가족치료는 환경 속에서 개인을 움직이고 기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이 바로 감정이라고 본다(김용태, 2000). 특히 감정 중 불안은 보웬 가족치료의 중요한 개념으로, 실제나 가상의 위협을 인지하는 유기체의 반응이라고 정의된다(Kerr & Bowen, 2005). 불안이 높을수록 개인은 인지체계가 아닌 감정체계에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안이 높아지면 점점 자동적으로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Papero, 2012). 이러한 반응을 감정반사행동(emotional reactivity behavior)이라고 한다. 감정으로 서로 얽혀있는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이되어 흡수되기도 하며, 생애 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불안이 학습되기도 한다(김용태, 2000). 따라서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행동을 움직이는 힘인 불안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이삭의 원가족인 아브라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 먼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조난숙과 동료들(2010)은 아브라함 가족의 불안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이고, 둘째는 언약 성취의 지연으로 인한 불안이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데아 우르

에서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창 12:1; 히 11:9). 첫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을 살펴보자. 아브라함 시대의 배경을 고려할 때 가족을 떠나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행위는 자신의 유업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무모한 행위였다(김은미·황혜숙·김용태, 2013). 그렇게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줄곧 멸시와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였다(Calvin,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이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창 12:2).

둘째로 언약 성취의 지연으로 인한 불안을 살펴보자.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으나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창 12:4). 언약이 성취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후손을 얻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늙어감에 따라 육체가 노화되어 쇠약해졌고, 아내인 사라 역시 경수가 그치며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갔다(서철원, 2001). 언약 성취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사라져가자 아브라함은 친자가 아닌 자신이 신뢰하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기도 하였다(창 15:3). 그리고 이후 아내인 사라는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씨받이 여인으로 남편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얻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안문혁, 1995). 결국 현실적인 대안조차 모두 좌절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후 하나님께서 이삭이란 이름까지 직접 지어 주시며 후손의 출생에 대한 언약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믿지 못하고 비웃을 정도로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창 17:17; 창 18:12). 즉,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언약 성취 지연으로 인한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출생과 성장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기적적으로 출생하였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자연적으로 이삭의 출생이 이루어졌다(이동원, 1989).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로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올 만큼 큰 웃음이 되었고, 그의 식솔 뿐 아니라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서철원, 2001; Burge & Hill, 2016; Laird, 1990). 그만큼 이삭은 출생할 때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어머니인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여인이라는 열등감과 한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다 씻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삭을 온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귀하게 키웠을 것이다(서철원, 2001). 그렇게

이삭은 맏아들이자 외동아들로서 부모의 관심과 축망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며 부유한 가정의 귀한 도련님으로 성장했다(이관직, 2014).

이러한 상황을 보웬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분석해보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자관계에서 언약 성취의 지연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삭이 등장함으로 인해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웬은 이를 삼각관계(triangling)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삼각관계란 불안정한 이자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정서적 상호작용 관계에 들어오게 됨으로 불안이 해소되는 형태를 의미한다(Kerr & Bowen, 2005). 이삭이 등장함으로 하나님-아브라함-이삭 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되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불안,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이삭이란 존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애착을 갖게 되어 융해되었다. 여기서 융해란 강하게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는 밀착된 관계를 의미한다(김용태, 2000). 융해진 관계(fused relationship)는 독립성보다 연관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기보다 감정에 의해 반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를 보웬 가족치료에서는 감정반사행동(emotional reactivity behavior)이라고 한다. 감정반사행동은 서로 밀착되어 감정을 공유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융해관계인 사람 중 하나가 독립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밀착된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융해관계의 다른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크게 화를 내거나 심하게 위축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관계를 더욱 끈고하게 유지하려 한다. 그러므로 삼각관계에서 삼자로 들어온 자녀의 경우, 그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불안이 올라오지 않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맞추게 되고 결국 독립적이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적절한 발달 과정을 밟지 못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진짜 자기(solid self)보다 가짜 자기(pseudo self)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짜 자기는 진짜 자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타인과 환경에 의해 쉽게 많은 영향을 받아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불안을 낮추기 위한 감정반사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삼각관계의 삼자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과도하게 밀착되어 의존한 채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안정시키며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삭이 부모의 뜻을 거슬러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그릇 행하여 비뚤어지거나 도전적 행동을 시도하다 위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통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과 관련된 불안이 다시 높아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삭은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 자체를 하지 않도록 엄하게 교육을 받았을 수 있

다. 게다가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서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은 느낌이었을 수 있다. 이는 곧 부모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쌓인 경험과 믿음의 성숙을 지닌 권위자였기에 자상하면서도 때로는 엄하기도 한, 이삭에게는 도저히 쉽게 저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이관직, 2014). Calvin(1993) 역시 아브라함이 갓난 아이였던 이삭의 연한 살을 상하게 해야 하는 할례를 행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극히 아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애착심을 내려놓고 엄격하게 순종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삭에게 있어서 부모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권위적 존재이기도 했기에 이삭은 삼각관계 안에서 더욱 의존적으로 되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융해된 삼각관계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불안은 이제 이삭에게 전해지게 된다. 이를 보웬 가족치료는 다세대간 전이과정(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이라고 부른다. 다세대간 전이과정은 가족 간의 삼각관계를 통하여 부모가 지니고 있는 정서, 감정, 태도, 가치, 신념, 등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간다는 개념이다(김용태, 2000). 다시 말하여 이삭은 부모의 불안이 높았던 만큼 강하고 견고하게 형성된 삼각관계를 통하여 부모가 가진 언약과 관련된 불안,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고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전수받게 되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삭은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불안을 낮추기 위해 이삭은 부모에게 더욱 융해되어 밀착됨으로써 독립적인 진짜 자기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가짜 자기를 형성하며 의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다. 진짜 자기보다 가짜 자기의 비율이 많은 사람을 보웬 가족치료는 분화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분화(differentiation)란 보웬 가족치료의 핵심 개념으로 개인이 가족의 감정 덩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것을 의미한다(Kerr & Bowen, 2005). 즉, 삼각관계에서 오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수록 분화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은 원가족의 삼각관계 안에서 낮은 분화수준을 가지고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제물 사건

성장과정을 볼 때, 이삭은 부모의 불안으로 인해 과보호 속에서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랐을 것이다. 이삭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갈등이 표면화되자마자 곧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해결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이삭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무난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삭이기에 그가 아버지에 의해 제물로 잡혀 제단 위에 놓여지게 된 경험은 이삭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수 있다. 신학자들의 견해처럼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제사법에 대해 익숙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은 극심한

공포를 야기했을 수 있다(김흥규, 1994; 서철원, 2001).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아직 성숙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즉, 아브라함은 오랜 시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감에 따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손인 아들을 죽임으로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목표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불안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분화수준이 높은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원가족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밀착된 분화수준이 낮은 미성숙한 사람이었다. 물론 신학자들의 견해처럼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순히 제물로 잡힌 행동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단지 미성숙함에 따른 감정반사행동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불안이 높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아브라함-이삭의 삼각관계 안에서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만약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하여 제물로 잡히기를 거부한다면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Kerr & Bowen(2005)은 불안이 증가되면 연관성에 의한 압력이 강해져 의존한 대상과 강하게 밀착되려는 욕구가 더욱 커진다고 하였다. 즉, 언약의 파기는 이삭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불안이었고, 불안이 극도로 상승하게 되자 이삭은 더욱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밀착되었을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 이삭은 아버지의 생각과 의지에 융해됨으로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독립적인 사고와 감정을 차단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순순히 따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처럼 이삭이 죽음과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이란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순종하려는 목표를 추구한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삭이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언약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아버지와 융해되어 감정반사행동을 한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4) 결혼 사건

제물 사건 이후 나타나는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자료들은 이삭이 분화수준이 낮았다는 점을 보충해 준다. 일부 신학자들은 제물 사건 이후 이삭이 아브라함과 거리감을 갖고 사라와 밀착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서철원, 2001; Calvin, 1993). Calvin(1993)은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할 때 어떤 이유인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따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어머니의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보았다. 서철원(2001)은 사라가 아들을 잃을 뻔한 소식을 듣고 그 뒤로 아브라함이 손

도 대지 못하게 자신의 장막에서 자기 품에 늘 두고 길렀기 때문에 이삭은 40세가 되기까지 장가도 가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이후 3년이 지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슬픔을 위로 받지 못할 정도로 어머니와 강하게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삭이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이삭이 분화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제물사건을 경험했다면 이는 이삭에게 건강하게 감당하고 소화할 수 없는 심각한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이제 아버지와 감정 단절을 하고 어머니에게 더욱 밀착되었을 수 있다(조난숙·송조흠·한영혜·최은영, 2010). 보웬 가족치료에서 감정 단절(emotional cutoff)이란 밀착된 관계에서 상대에 따라 반응해야만 되는 부담이 심해짐으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관계를 단절한다는 개념이다(김용태, 2000). 즉, 이삭은 제물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감정 단절을 시도하고, 아브라함-이삭 간의 이자관계가 불안해지자 이삭은 자신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라의 시도에 응하여 삼자인 사라에게 밀착함으로써 불안을 낮추는 삼각관계를 다시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반복적인 삼각관계의 형성과 밀착된 관계 특성은 이삭이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김용태(2000)는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결혼한 이후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밀착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면은 이삭이 어머니의 죽음 이후 배우자인 리브가를 만나자 곧바로 사랑에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삭은 당시 결혼적령기를 지난 늦은 나이였던 점과 밀착 대상인 어머니를 잃어 상실감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짝을 정해주시기까지 주변 가나안 여인들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삭은 여전히 언약 성취의 통로로서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에게 의존한 채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해석들을 고려해 볼 때 이삭은 제물 사건 이후 결혼할 때에도 여전히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우물 분쟁 사건

이삭의 의존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시자 이삭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낯선 타국의 땅에서 기근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이삭의 반응은 아버지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부모의 과보호를 받으며 시련이 없는 환경과 삼각관계 안에서 부모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위임한 채 의존하여 살아왔다. 따라서 이삭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자아를 발달시킬 수가 없었다. 스스로 판단하고 주

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삭이 취한 행동은 이미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적인 의존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근으로 인해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삭은 아버지처럼 가나안 지역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려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주를 막으셨다(창 26:1-2).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의 미모로 인해 다시 생명이 위협이 되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이삭은 아버지처럼 대처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창 26:7).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실제로 누이가 될 수 있었던 관계였다는 사실에 비해 이삭에게 있어서 리브가는 누이라고 할 수 없었던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행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단순히 아버지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해서 반복했다고 볼 수 있다(Calvin, 1993; Ruckman, 2016). 여기서 이삭의 행동을 단순히 이기적이었다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보웬 가족치료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유일한 통로였기에 그만큼 생존에 대한 높은 불안을 경험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다.

블레셋 왕을 속인 사건이 해결된 이후로도 이삭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은 계속 나타난다.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둘러싸고 다툼이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이삭은 계속하여 우물을 양보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창 10:14-21). 당시 그 지역은 건조하여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물은 부의 상징이자, 생존의 근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안문혁, 1995; 이동원, 1989). 이삭은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투쟁을 통해서 자신을 방해하는 무리를 얼마든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Calvin,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회피하는 반응만 계속 보였다. 이러한 이삭의 회피 반응을 낮은 분화수준으로 인한 감정 단절로 볼 수 있다. 보웬 가족치리에 따르면 분화수준은 가족 내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용태, 2000). 사회에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수록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비난을 당하게 된다. 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할 수행의 성공에 대한 불안을 점차 커지게 만들어 결국 그 사람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감정반사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이삭은 갈등으로 인한 불안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이 성공적이지 못하자 이후 벌어지는 갈등 상황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정 단절을 시도하게 되었을 수 있다. 즉, 이렇게 감정 단절을 시도함으로써 갈등의 대상에게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매번 우물을 양보하는 것으로 회피하게 된 것이다.

(6) 자녀관계 및 장자권

이삭은 리브가를 처음 만나고 사랑에 빠졌으나 두 부부는 점차 서로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Harbour, 1990). 그 이유에 대해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성격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면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학자들은 이삭이 소극적이고 조용하며 온순했던 성격이었던 것에 반해 리브가는 당시 남성중심의 사회 문화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이고 의사결정이 분명하며 민첩했던 성격이어서 둘이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안문혁, 1995; 유연희, 2003; 이관직, 2014; 이동원, 1989; Burge & Hill, 2016). Harbour(1990)는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갈등이 많았겠지만 이삭은 갈등을 직면하여 해결하지 않고 회피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보웬 가족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밀착의 대상이었던 어머니를 상실함에 따라 리브가와 밀착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욕구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의존적인 이삭의 성격은 이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리브가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을 수 있다. 그래서 리브가와 밀착하는 데 실패하게 되자 이삭은 감정 단절로 대처하며 감정반사행동을 했을 수 있다. 어쩌면 우물 분쟁 사건들로 인해 가족들은 피해, 고통, 억울함을 경험했지만,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무능력하게 회피로 일관해버릴 때마다 적극적인 실행력을 가졌던 리브가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갈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이삭-리브가의 이자 관계에서 부부 각자가 아들들을 삼각관계로 끌어들이며 불안을 낮추고자 했다는 점이다. 부부 관계 사이에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끌어들이며 두 개의 겹쳐진 삼각관계를 형성하였고 각자 다른 아들을 편애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삭이 다시 뚜렷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은 그가 여전히 분화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언약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란 예언을 리브가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삭도 전해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Burge & Hill, 2016; Calvin, 1993; Henry, 1975). 그런데도 이삭은 지속적으로 에서를 편애하였고 장자권도 에서에게 주려고 시도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학자들은 에서가 신체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야곱보다 더 강인하고 훌륭하여 장자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성경 본문에 기초하여 이삭이 식탐이 강한 사람이어서 에서가 잡아오는 사슴 고기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Burge & Hill, 2016; Calvin, 1993; Stevens, 2003). 이 둘의 어느 견해도 보웬 가족치료적 관점으로 볼 때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를 더욱 명료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에서는 건장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이삭에게 기쁨까지 주었던 아들인 반면에 야곱은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나태한 사람으로 칭찬할 거리나 쓸모가 별로 없는 아들이었다(Calvin, 1993). 따라서 이삭이 전수받은 언약에 대한 불안은 이삭으로 하여금 둘 중 더 훌륭한

아들을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둘째로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삭은 언약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지나치게 스스로를 억압하여 건강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만족을 얻지 못했을 수 있다. 진짜 자기보다 가짜 자기가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건강하지 못한 욕구 충족 방식에 집착하게 되어 지나치게 식욕의 쾌락에 빠진 나머지 에서를 편애했을 수 있다(이관직, 2014). 어느 편의 해석이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에 대한 과도한 불안은 이삭으로 하여금 분화수준을 높여 합리적으로 사고함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분화수준이 낮아 상황에 따라 회피적으로 감정반사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전히 낮은 분화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죽고 자신의 신체도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이삭은 죽음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은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의 통로로서 후손을 이어가야 하는 불안을 높이지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삭은 서둘러 장자권을 축복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언약의 후손이 되는 장자권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 에서가 아닌 어린 자 야곱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런데 이삭은 이를 기억하지 못해서인지 혹은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고 가볍게 여겨 잊어버렸거나 혹은 이를 거부하면서까지 삼각관계 안에서 자신과 밀착되어 있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감정 단절을 한 채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직접 나아가 대화로 설득하기보다 이삭 몰래 거짓으로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리브가의 의도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인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였는지, 둘 모두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찌 되었든 결국 이삭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거짓 속임수에 속아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하게 된다.

여기서 학자들은 이삭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크게 떨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삭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게 되었다고 보았다(안문혁, 1995; Burge & Hill, 2016; Calvin, 1993; Henry, 1975; Ruckmann, 2016). 그 동안 이삭은 과거에 자신의 행동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 단절을 통한 회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불안한 상황과 관계에서 안일하게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반사행동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할 뻔했다는 자신의 문제를 이제 직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과실을 저지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흔들리거나 좌절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경

험했던 것처럼 이제 이삭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삭은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 행동하면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자신의 불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과거와 같이 감정반사행동으로 감정 단절을 하여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 이삭은 울부짖는 예서의 상실감과 분노를 보며 예서를 편애하여 예서와 밀착되었던 만큼 심하게 괴로운 감정을 같이 겪었을 것이다. 아내와 야곱에게 거짓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과 수치심은 이삭의 심리적 고통을 배가시켰을 것이다. 어쩌면 야곱이 거짓말을 하여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삭은 장자권을 철회하고 번복할 수도 있었다(Calvin, 1993). 그러나 이제 이삭은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야곱을 불러 장자권을 반복하여 인준함으로 감정반사행동이 아닌 목표 지향적 행동을 보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보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경험함으로 불안이 낮아져 분화 수준이 올라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 기록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의 믿음의 행위를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한 행위가 아닌 장자권 축복 행위로 언급하고 있다(이동원, 1989; Ruckman, 2016). 그러나 아쉽게도 이삭은 너무 늦은 노년의 시기에 분화 수준이 다소 올라간 정도에 머물렀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후 예서의 분노로 인해 야곱이 멀리 친척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재하고 개입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가족이 갈라져 분열되는 상처는 막지 못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III.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웬 가족치료라는 이론적 틀을 통하여 이삭의 생애 동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건들을 분석함으로 이삭의 행동을 해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보웬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인 불안, 삼각관계, 분화수준에 따른 관점으로 다시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타지에서서의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 불안은 이삭의 원가족으로부터 전수된 것이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의 생명 위협과 불임으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지연으로 심한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은 점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가고 결정적으로 이삭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경험하며 불

안이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불안은 아들인 이삭에게 전수되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었던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 따라서 이삭은 부모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독차지하며 충애를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만 했다. 이삭은 만약 자신이 요절하거나 기대에 어긋나 비뚤어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통로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심지어 이삭은 아버지의 가계를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난, 주변 민족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살았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불안은 이삭으로 하여금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형성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둘째로 이삭이 형성하고 있던 삼각관계는 이삭이 부모로부터 불안을 전수받은 통로다. 이는 이삭의 행동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삭의 삼각관계는 사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먼저 이삭은 출생하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의해 하나님-아브라함-이삭의 삼각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삭은 언약 성취와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자관계에서 갖고 있던 불안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삼각관계 안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불안을 전수받으며 아버지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여 착하고 말 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로 성장하였다. 이후 불안이 극에 달하는 제물 사건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용해됨으로써 목숨까지 포기하는 복종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비해 성숙하지 못했던 이삭은 이 제물 사건을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자관계에서 긴장이 유발되며 이삭은 아브라함과 감정 단절을 하게 되고 어머니인 사라에게 밀착하여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와 떨어져 어머니 곁에서 늦은 나이까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고, 어머니가 죽어 단절된 이후야 다시 아버지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된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 가장이 된 이삭은 가난으로 인해 생명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는 미성숙한 대처들을 함으로써 역할 수행에 실패를 경험한다. 이러한 실패 경험은 이삭으로 하여금 이후 갈등 관계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므로 삼각관계를 다시 형성한다. 즉, 강인하고 성숙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여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모든 불안을 해결해주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이후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게 무조건 양보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감정 단절을 일관되게 시도하며 가만히 있게 된다. 한편, 이삭은 어머니 대신 밀착하고 싶은 대상이었던 아내와의 이자관계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밀착에 실패하게 된다. 이자관계에서 불안이 높아지자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끌어들이므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이삭과 감정 단절이 된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끌어들이며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삼각관계 안에서의 편애는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을 경홀히 여기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게 만든다.

셋째로 이삭의 분화수준을 살펴보면, 주요 사건들에서 항상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삭은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각관계의 형성은 낮은 분화수준을 시사

하기 때문이다. 이삭은 출생에서부터 제물 사건, 결혼 사건, 우물 분쟁 사건, 장자권 축복 사건에 이르기까지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갈등이 야기될 때마다 이삭은 삼각관계를 형성했다. 삼각관계 안에서 이삭은 밀착된 대상에게 용해되거나 감정단절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성애에 따른 결정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감정반사행동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장자권 축복 사건의 마지막 순간에 이삭은 자신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언약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언약 성취가 자신의 힘과 노력, 뜻에 따라 좌절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이삭은 언약 성취에 대한 불안이 낮아지게 되어 분화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삭은 예서와의 밀착된 관계에서 오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자권을 확고하게 인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삭은 단순히 천성적으로 착하고 온순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출생부터 대부분의 생애 동안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삼각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감정반사행동으로 대처하는 분화수준이 낮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 따른 기독교상담학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를 통해 이삭이 가진 불안의 내용과 크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됨에 따라 이삭의 행동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삭은 표면적으로 감정기복이 없이 갈등하는 심리나 행동이 잘 드러나지 않아 조용하게 무난한 삶을 살았다고 보았지만, 실제로 그가 경험한 불안의 내용과 크기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담자의 행동이나 표현, 증상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게 될 때 상담자는 내담자를 보다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 이삭과 같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양육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비롯해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과도한 애정과 관심에 따른 과잉보호를 받은 자녀들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모가 형성한 삼각관계를 깨뜨리면 불안과 갈등이 발생하여 처벌을 받거나 죄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실수 뿐 아니라 독립적인 행동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나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전수받게 되어 합리적인 사고에 따른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친 과잉보호나 훈육은 도리어 자녀의 분화수준을 낮아지게 만들어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셋째로, 이삭이 분화수준이 낮은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는 점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성경인물들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화되거나 긍정적인 측

면만 부각하여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해석과 그에 따른 설교와 교훈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에 걸 맞는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부담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좌절감과 수치심,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은 미성숙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신다. 도리어 작고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자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때로 이삭처럼 인간이 미성숙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계획에 고의적으로 거역하거나 혹은 본의 아니게 반대로 역행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상황에서조차 계획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란 존재는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자원이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상담 장면에서 찾아온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불안과 같은 고통에서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넷째로, 이삭이 보여준 순종과 평화를 추구하는 행동이 분화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나타난 감정반사행동이란 점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이삭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성숙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기대나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 때 감정반사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이나 부모, 교회의 어른과 같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심해질 때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자체를 무시하고 전적으로 상대에게 용해됨으로 불안을 낮추는 감정반사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겉으로 그런 척 상대방이 기대하는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삭처럼 겉으로는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지만 정작 성숙한 사람으로 발달해갈 수 있는 기회는 놓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과정적 존재로서 거룩함을 향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다(김진, 2006). 즉, 과정에 있다는 말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거룩함과 죄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 갈등과 불안은 처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로 인해 탄식하며 번민을 거듭한 끝에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통합할 수 있을 정도였다(롬 7:21~8:2). 따라서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기대나 부담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거룩함과 죄성을 통합하지 못한 채 감정반사행동으로만 대처하며 자칫 외식주의자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성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부족할 수 있는 존재란 것을 수용함으로써 심리적 갈등을 통합하고 불안이 낮아지

게 도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경에 이삭과 관련되어 기록된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고 제한적이다. 이러한 적은 일차 자료는 불가피하게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의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한 다양한 이차 자료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삭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 연구의 분석 틀인 보웬 가족치료로 인한 제한점이 있다. 인간의 모든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이론이란 존재할 수 없다. 보웬 가족치료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석상 한계와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보웬 가족치료는 삼대의 풍성한 가족들의 자료가 필요한데 이삭의 할아버지 가족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제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론을 통해 이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문헌 연구들을 조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한이 있다. 여기에 연구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복음주의적 관점의 주석만을 근거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삭의 행동을 보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미경 (2011). 외상후성장(PTG) 모델로서 이삭, 요셉 이야기. **신앙과 학문**, 16(4), 7-31.
- [Kim, M. K. (2011). The Isaac & Joseph Story as a Model for Posttraumatic Growth. *The Journal of Faith & Scholarship*, 16(4), 7-31.
- 김병태 (1998). 외동아와 형제아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비교 연구. **아동교육**, 7(1), 172-190.
- [Kim, B. T. (1998). A Comparative Study on Sociability and Self - esteem between the only children and sibling childre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7(10), 172-190.]
- 김순영 외 역. (2005). **IVP 성경주석-구약**. Wenham, G. J. & Carson (1994).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Kim, S. Y. et al. (2005). IVP Bible Commentary-Old testament. Seoul: IVP. Wenham, G. J. & Carson (1994). *New bible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Westmont, IL: Inter-Varsity Press]
- 김영애, 김정택, 심혜숙 역. (2011). **가족치료: 핵심개념과 실제 적용**. Nichols, M. P. (2009). Family Therapy - Concepts & Methods. 서울: 시그마프레스.
- [Kim, Y. A., Kim, J. T. & Shim, H. S. (2011). Family Therapy - Concepts & Methods. Seoul: Sigmappress. Trans. Nichols, M. P. (2009). *Family Therapy - Concepts & Methods*. London: Pearson]
- 김용태 (2000). **가족치료이론**. 서울: 학지사.
- [Kim, Y. T. (2000). *Family Therapy Theories*. Seoul: Hakjisa.]
- 김은미, 황혜숙, 김용태 (2013). 보웬이론으로 본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신앙과 학문**, 18(4), 71-92.
- [Kim, E. M., Hwang, H. S., Kim, Y. T. (2013). Bowenian Understanding on the Story of Abraham and Sarah. *The Journal of Faith & Scholarship*, 18(4), 71-92.]
- 김진 (2006).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서울: 생명의말씀사.
- [Kim J. (2006). *A story, wish to share with Christians*. Seoul: lifebook.]
- 김홍규 (1994). **성경 속의 부부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영문.
- [Kim, H. K. (1994). *The story of couples in the Bible*. Seoul: Youngmoon Press.]
- 남순현 역.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Kerr, M. E. & Bowen, M. (1989). Family Evaluation :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서울: 학지사.
- [Nam, S. H. (2005). Family Evaluation :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Seoul: Hakjisa. Trans. Kerr, M. E. & Bowen, M. (1989). *Family Evaluation :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WW Norton & Co.]
- 남순현 역. (2012). **보웬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Papero, D. V. (1990). Bowen Family Systems

- Theory. 서울: 시그마프레스.
- [Nam, S. H. (2012). Bowen Family Systems Theory. Seoul: Sigmappress. Trans. Papero, D. V. (1990). *Bowen Family Systems Theory*. London: Pearson]
- 노용찬 (1996). **성인아이 치유를 위한 12단계**. 인천: 도서출판 글샘.
- [Noh Y. C. (1996). *12 Steps to Healing Adult Child*. Incheon: Geulsaem Press.]
- 말씀보존학회 역. (2016). **창세기 2**. Ruckman, P. S. (2011). Genesis Commentary. 서울: 말씀보존학회.
-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2016). Genesis 2. Seoul: 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 Trans. Ruckman, P. S. (2011). *Genesis Commentary*. FLorida: BB Bookstore.]
- 번역위원회 역. (1990). **구약원어신학사전 하**. Laird, H. R. (1981)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서울: 요단출판사.
- [Translation Committee (1990).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II. Seoul: Jordan Press. Trans. Laird, H. R. (1981)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IL: Moody.]
- 변재봉, 이관직 (2016). 야곱 가족의 역기능성과 그 치유 과정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이해: Bowen의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9, 91-133.
- [Byun, J. B., Lee, K. J. (2016). An Understanding for Dysfunction of Jacob's Family and the Therapy Process from a Pastoral Counseling Perspective: Centered on Bowen's Family Theory. *The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79, 91-133.]
- 서철원 (2001). **창세기 2권**.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 [Seo, C. W. (2001). *Genesis II*. Seoul: Gerizim Press.]
- 안문혁 (1995). **창세기 강해설교집 <2권>**. 서울: 도서출판 영문.
- [Ahn, M. H. (1995). *Expository Sermons from the Genesis II*. Seoul: Youngmoon Press.]
- 안윤경, 오지희, 김용태 (2016). 총아로서의 요셉의 심리구조 연구 : 보웬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171-193.
- [Ahn, Y. K., Oh J. H., Kim, Y. T. (2016). A Study of Joseph as a Blessed Child and His Psychological Structure: Centered on the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7(2), 171-193.]
- 유연희 (2003).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 **신학사상**, 120, 99-129.
- [Yoo, Y. H. (2003). The God of Abraham, Rebekah and Jacob.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y*, 120, 99-129]
- 윤남옥 (2003). **성경 속 인물들의 내적치유 일기**. 서울: 도서출판 진흥.
- [Yoon, N. O. (2003). *Healing: The inner healing diary of biblical characters*. Seoul: Jinheung

Press.]

이관직 (2014).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말씀사.

[Lee, K. J. (2014). *Psychological analysis of biblical characters..* Seoul: lifebook.]

이동순 (2005). **구약시대 족장들의 가계도 분석을 통한 목회상담 연구 : 보웬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Lee, D. S. (2005). *A Study o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through a Genogram Analysis of Patriarchs in the Old Testament Times : Centered on Bowen's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of Ministry, Hanshin University, Seoul, Korea.]

이동원 (1989). **첫 믿음의 계승자들 이삭, 야곱, 요셉**.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Lee, D. W. (1989). *Heirs of the first faith, Isaac, Jacob and Joseph*. Seoul: Nachimvan Publishing.]

이수미, 김용태 (2014). 야곱의 심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Bowen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187-217.

[Lee, S. M., Kim, Y. T. A study on the process of Jacob's psychological change: Centered on the Bowen theor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5(3), 187-217.]

장일선 (1995). **구약성서와 현대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Chang, I. S. (1995). *Old Testament and Modern Life..*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정옥배 역. (2016). **베이커 성경주석 (구약편)**. Burge, G. M. & Hill, A. E. (2012). *The Baker Illustrated Bible Commentary*. 서울: 부흥과개혁사.

[Chung, O. B. (2016). *The Baker Illustrated Bible Commentary (the Old Testament)*. Seoul: Revival & Reformation. Trans. Burge, G. M. & Hill, A. E. (2012). *The Baker Illustrated Bible Commentary*. East Fulton: Baker Books.]

정혁조 역. (1975). **창세기(하)**. Henry, M. (1940). *Matthew Henry's COMMENTARY*. 서울: 기독교문사.

[Chung, H. J. (1975). Genesis II. Seoul: KCLP. Trans. Henry, M. (1940). *Matthew Henry's COMMENTARY*. London: Pickering & Inglis, Ltd.]

조난숙, 송조흠, 한영혜, 최은영 (2010). 창세기 가족의 보웬 가족상담적 분석 및 성경적 함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299-326.

[Cho, N. S., Song, J. H., Han, Y. H., Choi, E. Y. (2010). Bowenian Approach to the Patriarchs' Families and its Biblical Impli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0, 299-326.]

한중식 역. (1990). **성서의 유명한 부부들**. Harbour, B. L. (1979). *Famous Couples of the Bible*. 서울: 혜선출판사.

- [Han, J. S. (1990). Famous Couples of the Bible. Seoul: Hyesun Press. Trans. Harbour, B. L. (1979). *Famous Couples of the Bible*. Nashville, TN: Broadman Press.]
- Calvin, J. (1993). 성서교재간행회(편저). 칼빈 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회
- [Calvin, J. (1993). Biblical Textbook Publication (Eds.). *Calvin Bible Commentary*. Seoul: Biblical Textbook Publication]
- Sledge, T. (1992). *Making Peace with Your Past: Help for Adult Children of Dysfunctional Families*. Before I Said Goodbye Books.
- Stevens, R. P. (2003). *Down-ToEarth Spirituality: Encountering God in the Ordinary, Boring Stuff of Life..* Westmont, IL: Intervarsity Press.

보웬 가족치료를 통해 살펴본 이삭의 불안과 분화수준

Isaac's Anxiety and Differentiation Level Analyzed by Bowen Family Theory

서 정 우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 용 태 (아가페 초월상담연구소/교신저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보웬 가족치료 이론을 통해 이삭을 기독교상담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삭의 생애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과 배경에 따라 시간 순으로 이삭의 불안과 분화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는 원가족 배경, 출생과 성장기, 제물 사건, 결혼, 우물 분쟁 사건, 자녀관계 및 장자권 축복 사건이다. 이렇게 살펴본 자료를 결론에서 불안과 삼각관계, 분화수준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는 유일한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불안을 가지고 살았다. 둘째로, 이삭은 높은 불안으로 인해 하나님과 부모, 자식, 타인들과 삼각관계를 반복하여 형성하였다. 셋째로, 이삭은 반복되는 삼각관계 안에서 낮은 분화수준을 가진 채 성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삭이 나타낸 순종과 평화주의적 행동은 합리적인 사고에 따른 행동이 아닌 불안에 따른 감정반사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삭은 노년에 장자권 축복 사건을 통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가시는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분화수준이 높아질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거짓으로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반사행동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야곱에게 축복한 장자권을 확고하게 인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상담학적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이삭, 보웬 가족치료, 불안, 분화수준, 기독교 상담